

## 로마서 소개

토미 기븐스 박사(Dr. Tommy Givens)는 로마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위대한 이야기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친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토미 기븐스(Dr. Tommy Givens) 박사입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풀러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제 자신의 관점에서 보든, 풀러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는 바울의 편지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듣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아 온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응답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공동체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임을 밝히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시다시피 이 서신의 시작은 걱정적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진리 체계의 복음이 아니라, 이야기의 정점이 되는 복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들에게 특별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미래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치유될 미래,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쏟아져 나오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서신의 독자들은 이미 바울의 복음의 절정이 되는 이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서신에서 말하는 과업이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비추어 독자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결국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서로의 삶에서 역동성을 키우는 것, 사람들  
간에 특정한 공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위대한 이야기에 통합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 왕의 약속된 후계자, 또한 하나님 자신의 상속자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성향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서로가  
멀어져야 하고, 국가 간에 국경선을 두어야 하고, 요즘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경계가 우리의 환대를 훼손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성향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무기를 믿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족으로써 모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내거나 심지어 성경에서 인용하여 세운 규칙을 바탕으로 서로를  
갈라놓는 벽을 세우는 것 대신에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세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세대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바울이 서신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경향들을 물려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힘, 곧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물려 받았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함입니다.

